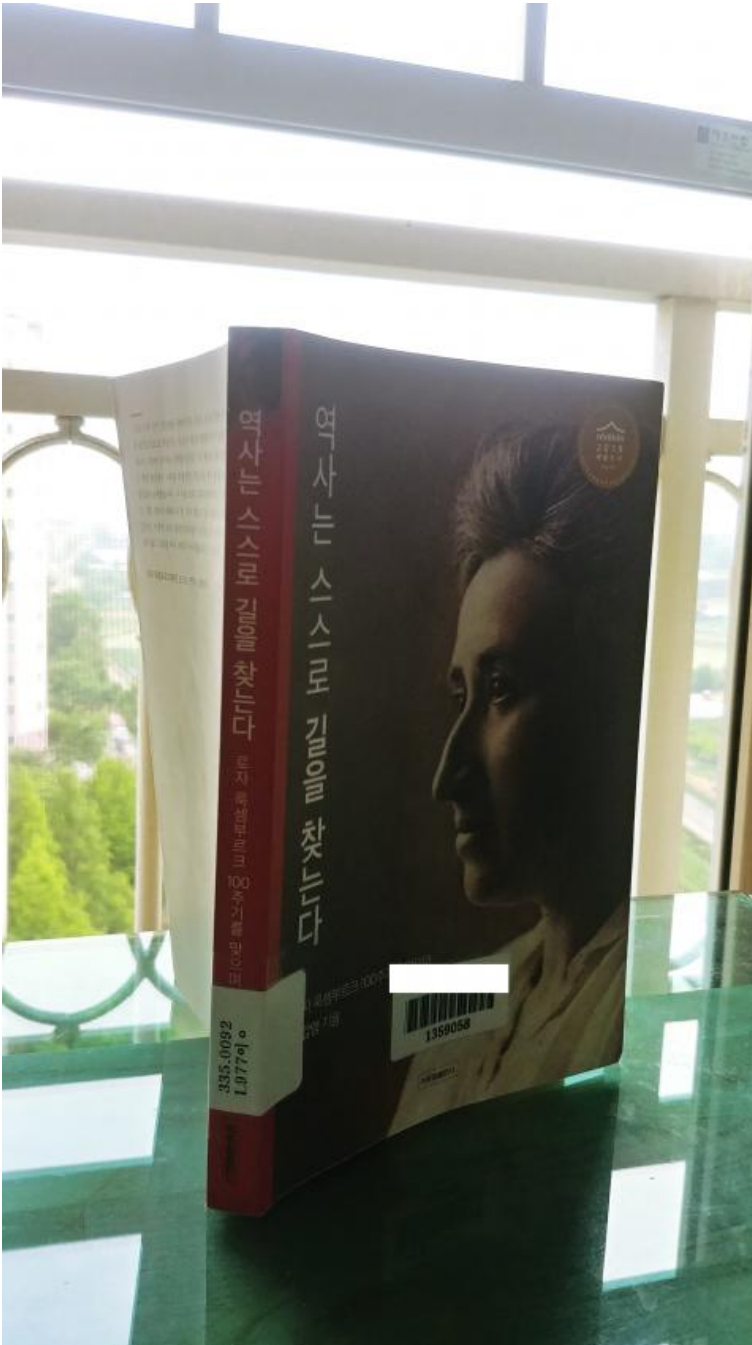


독서회) 역사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폰나타



빨갱이 지망생이다.

레닌의 글은 읽어본 적 있지만 김주영의 글은 읽어본 적도 없고 김주에 대한 글도 나무위키를 제하면 읽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문해보자는 생각으로 읽어갔다.

독후감으로 무엇을 써야할 것인가,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좋고 관련 주제를 연구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내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면 독후감을 읽는 사람에게 영혼의 울림이나 잠깐 안겨주고 로자가 말한 변증법적 사고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주제어가 몇 가지 있다: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제국주의, 그리고 자발성이다.

이 점은 이 책이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저자와 동료의 논문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더 두드러진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은 그 이름으로 내용이 설명된다.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것은 뒤의 두 개 뿐이다. 현실에 대한 이론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여, 그 결과로부터 배워서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이다. 이는 삶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일 것이다.

제국주의에 관해선, 룩셈부르크가 이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카우츠키는 신용경제,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등장 등으로 자본주의의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사회계량주의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을 경제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정의는,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를 침식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더이상 침범할 비자본주의가 없을 때가 자본주의가 붕괴할 때이고, 1차대전은 이런 의미에서 각축전에 늦게 참여한 독일이 자기 몫을 요구함으로써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대재생산표식인지 뭔지를 수정하고 군국주의의 필연성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렇게까지 깊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음

자발성(spontaneität)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중 실천의 측면에 포함되는 요소다. 물론 책에서 지적한대로 레닌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부는 이를 근거로 룩셈부르크를 낭만주의자나 객관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오해에 따른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자발성 개념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레닌의 의식성과 대비하는 것이다. 의식성과 자발성은 모두 실천의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그러나 의식성이, 러시아 혁명에서의 볼셰비키가 그러했듯, 깨우친 엘리트들이 지령을 전달하고 노동자 대중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의 실천이라면, 자발성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가 각성하여, 역사적 필연성을 현실에 실현하는 속성이다. 아마 이것이 레닌과 룩셈부르크의 길이 갈리는 지점일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입장에서,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의 명예를 수호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계급독재가 아닌 소수독재로 이행하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채로 대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 아래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룩셈부르크는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동시에 비판하며 특권이 된 자유는 더이상 자유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오텔의 동물농장이나 트로츠키의 퇴보한 노동자국가론이 떠오르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후 소련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나는 이들이 사태를 정확히 꿰뚫어봤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의 주제들을 포괄하는 주제로 '바르게 보기' 즉 '정견'을 제시한다. 착한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게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무시하는 것 없이 보자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도그마를 버리는 것이다. 실천의 바탕이 되는 어떤 이론도 도그마를 통해선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다. 이런 태도 덕분에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와 레닌도 비판할 수 있었고, 의회주의를 누구보다 반대하다가도 일단 의회주의가 가결되자 누구보다도 강력히 독일공산당의 의회참여를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코 기회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사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러시아 혁명에서의 볼셰비키주의의 특수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모방을 경계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전위적 선도집단의 부재는 독일 1월 봉기가 일어나고 통제되지 않게 해 그를 죽음으로 몰고갔다. 그가 살아남았다면, 변증법적인 삶의 태도로 보건데 아마 이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 될지, 나의 앞은 지식으로는 아마 그것이, 레닌주의적 전위집단이 그 자체가 목표로 되서는 안 되지만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만 어렵듯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지 30년이 되었고 마르크스주의가 공상과학 취급을 받는 시대가 왔다. 카우츠키가 100년 전 말한 것과 같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해 프랜시스 누구씨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게도 했고, 100년 전 1차대전이 시작되고 국가이데올로기에 인민들이 포로가 되어 국제연대가 무너진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붕괴는 언제쯤 오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 테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떠오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유산이며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사명을 깨닫게 할 것이다.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은, 그가 말한대로, 역사가 요구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낼 힘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책에 언급된 이론들도 더 찾아보고 글도 더 영양가 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불운하게도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노동자 계급을 실수를 범하면서도 역사의 변증법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